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닭고기 · 오리고기 · 계란,
홍콩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홍콩측이 '14.5월부터 수입 중단한 우리나라산 닭고기 · 오리고기 · 계란 등 신선 가공제품의 홍콩 수출이 한홍 검역 당국의 협의를 통해 '16.3.11일자로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2.28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3.3)한지 8일 만에 이룬 성과로, 과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성사된 것이다.

* 과거 사례 : ('09) 청정화 선언 후 11개월 만에 수출 재개, ('11) 43일 만에 수출 재개

** 대 홍콩 가공제품 수출 실적(천불, 불임 참조) : ('12) 3,454 ('13) 11,301 ('14) 373

그간 농식품부는 홍콩 현지에 있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협력하여 홍콩 측에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홍콩 측과 실무 검역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우리 측 대표단과 주홍콩한국총영사관 관세관(이민근)과 직접 통화를 통해 격려와 조언을 하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한홍 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16.3.11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공제품(가금육의 경우 도축 · 가공)이면 수출이 즉시 가능하다.

*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따라 열처리 등 가축 전염병 원인체를 사멸시키는 조건으로 가공된 가열 제품(삼계탕 등)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수출이 가능

아울러, '14.5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에 기 등록된 국내 수출 작업장 40개소* 모두가 수출이 가능하며, 기존에 양측 정부 간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도 그대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 홍콩 수출 작업장(총 40개소) : 가금육 38개소(도축장 21, 가공장 17), 계란 2개소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 가공제품이 홍콩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도록 AI 재발 방지 및 수출 검역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출 업계 등과 협력하여 홍콩 현지 홍보 · 판촉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2015년 식품 원료 45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대하 대신 흰다리새우를 사용한 경우, 어성초 대신 삼백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표시사항과 다르게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유전자 분석법의 원리는 동·식물성 식품원료에서 특정 종(種)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절단, 분쇄 등의 단순 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해물동그랑땡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 유전자의 특정한 부위를 증폭시키는 방법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V)'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분석법은 CD에 수록하여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범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해당 판별법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 209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식약처는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등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봄철 꼭 알아야 할 가축 전염병 예방 요령 안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기온이 오르는 봄은 호흡기 질병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에 유의하고, 더불어 여름철 유해 곤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건조한 공기와 큰 일교차로 인해 가축은 환경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된다.

개방형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의 경우, 바람막이를 이용해 온도차 발생을 막고, 송아지는 보온등을 켜서 체온을 유지해준다.

닫힌 공간에서 키우는 돼지나 닭은 축사 바닥을 자주 청소하고, 적절한 환기로 유해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는다. 또, 사육 밀도를 낮춰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황사나 미세먼지로도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방목 가축을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축사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다. 벧짚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준다. 황사특보가 해제되면 축사나 방목장 사료조와 기구류를 세척, 소독하며 가축의 질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봄까지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0월부터 이듬해 5월 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가축 질병

예찰을 강화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한다. 발판 소독조를 축사 입구에 두고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로 바꿔 착용하며 자체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 흡혈곤충 매개성 질병을 비롯한 전염병은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기 전인 봄에 예방 접종을 해 가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한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탄저병과 흡혈곤충 매개성 질병인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돼지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질병예방을 위해 전염성비기관염과 바이러스성설사병 등에 대해서는 혼합백신을 접종한다. 그 밖의 필수 예방 접종인 돼지열병 백신과 구제역 백신은 한 번에 정기 접종한다(단, 돼지열병 백신은 제주도 제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가축질병방역팀장은 “올해 초 전복에 이어 중남까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백신 접종과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연중 시기에 맞는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없는 건강한 농장을 유지하면 생산 소득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정부3.0 업무협업 강화

HACCP 인증을 통해 축산물 위생·안전을 관리

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과 가축질병 근절을 통해 안전한 축산식품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가 손잡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정책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인증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축산농가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방역 및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지금까지 HACCP 인증심사와 방역사업 시 각각의 일정에 따로 방문하던 것을 올해 3월부터는 같은 일정에 동시에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시범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돼지 및 산란계 농장 122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일정의 사전 공유를 통해 HACCP 심사 중 연장심사, 조사평가와 시료채취를 동일 날짜에 실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등급 정보 분석 전문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3월 11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내부 등급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그룹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자료의 활용성을 높여 축산농가, 학계,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3.0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앞서 축평원은 지난 12월에 일반 직원도 등급판정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시스템인 OLAP(올랩,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도입해 등급통계의 대내외 활용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다.

도입된 통계분석시스템은 20여 년간의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축평원은 내부 교육을 통해 육성한 전문인력과 등급 OLAP 시스템을 활용해 농가컨설팅, 증가하고 있는 공공·민간의 등급통계 자료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앞으로도 등급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국민과 학계·기관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3기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3월 18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3기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YAFF ; Young-Agri-Food

Fellowship, 이하 약) 발대식을 개최했다.

얍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정책 소통활성화, 취업·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인재 육성을 위해 '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로서, 현재 국내외 2,3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글로벌 K-Food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마친 약 회원이 현지 주재원으로 정식 채용되는 등 해외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발대식 행사에서는 올해 진행예정인 다양한 약 프로그램의 소개와 함께 전문가의 취업특강,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을 병행하여 농식품 분야 및 해외시장 일자리 진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aT에서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도 식품기업 현장학습, 국내외 인턴십, 농식품 인재육성 교육, 각 지역별 강소식품기업 탐방 등 농식품기업 취업에 요구되는 실무적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국내외 회원간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3년차를 맞은 얍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식품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올해에는 해외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내 농식품 기업의 인력난과 대학생의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얍 회원가입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은 약 공식 온라인카페(cafe.naver.com /yaff) 또 얍 운영사무국(061-931-0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사료

사료값 평균 3.5% 인하

농협사료(대표이사 장춘환)는 3월 18일(금)부터 사료가격을 전격 인하했다. 혁신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가격인하는 최근 구제역 재발 및 내수경기 침체, 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양축농가를 돕고자 결정되었다.

금번 인화로 사료가격은 기존가격 대비 kg당 14원(평균 3.5%) 하락하게 된다. 농협사료 이용농가 전체적으로는 약 300억 원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사료업계 파급효과는 약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사료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환율상승은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며 작년 5월(농협사료 가격조정 시점)과 비교할 때 환율은 139원 상승하여 가격인하 요인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양축농가를 돕고자 자발

적인 긴축경영 등을 통해 금번 가격인하를 결정하였다.

농협사료는 지난 2월, 제2창업의 각오로 자체개혁을 실시하여 대표이사 및 본부장을 전원 교체하는 등 강력한 인적쇄신과 구매시스템 개선, 불요불급 비용절감 등 긴축경영을 단행하였으며 금번 가격인하를 통해 '양축인과 조함이 피부로 느끼는' 농협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곡물가격은 안정적이나 환율은 변동폭이 높고 농협사료의 주요 판매대상인 비육우 시장이 축소되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하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협사료는 작년 두 번(총 7.2%)에 걸쳐 사료가격을 인하한 바 있으며 금번 인하조치를 통해 양축농가를 위한 환원정책과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사료로서 농협사료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